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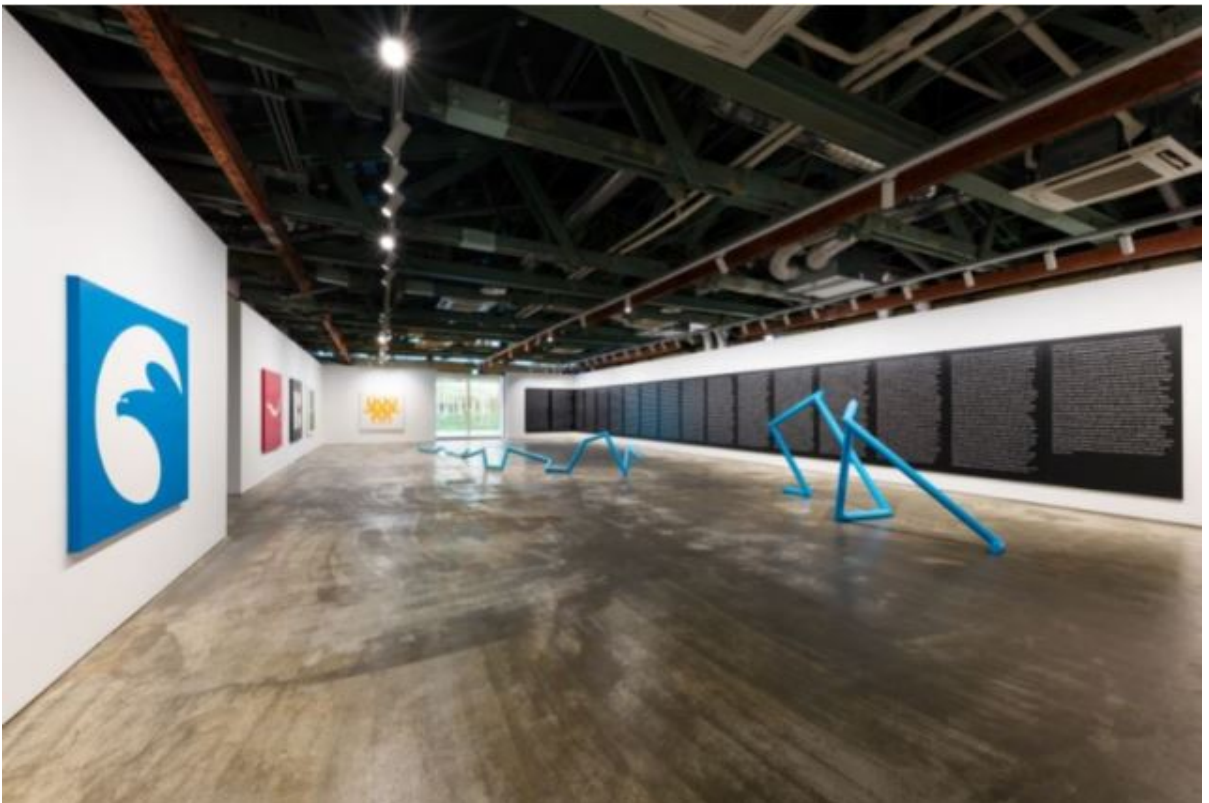
아티스트 그룹 슈퍼플렉스와의 만남

August 20, 2019 | 이소영 기자

page 1 of 7

금융 위기는 어떻게 귀여운 미술 작품이 되었나?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의 잔재는 여전히 남아 있다. 슈퍼플렉스 SUPERFLEX는 당시 파산한 은행 로고를 귀여운 팝 아트 작품으로 재창조했고, 비트코인의 급격한 가치 변동은 조각 작품으로 만들었다. 기후 변화와 공유 경제 개념 역시 작품으로 탄생시켰으니, 그들을 현대사회 문제점을 가장 직접적 반영하는 미술가라고 단언해도 될 것 같다.



[Kukje Gallery Busan] SUPERFLEX_installation view_1

슈퍼플렉스는 1993년 덴마크 왕립 미술 아카데미 동창 야콥 핑거Jakob Fenger, 브외른스테르네 크리스티안센Bjørnstjerne Christiansen, Rasmus Nielsen이 결성한 3인조 그룹. 지난 25년 동안 동시대 이슈를 다루고 있으며, 초창기부터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2008년 금융 위기를 기준으로 구舊 경제와 신新 경제로 나눈 사회 모습과 대안을 꾸준히 표현해왔다. 2003년부터 광주비엔날레에 총 5회 참여하는 등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깊다.



[Kukje Gallery Busan] SUPERFLEX_artists profile

이번 전시를 위해 라스무스 닐슨을 제외한 두 명이 한국을 방문했다. 전시 제목 <우리도 꿈속에서는 계획이 있다>는 그룹 아바의 노래 '머니 머니 머니Money Money Money' 가사에서 따온 것이다. 이 전시는 덴마크 수교 60주년 기념 이벤트이기도 하다. 국제갤러리 부산에서 10월 27일까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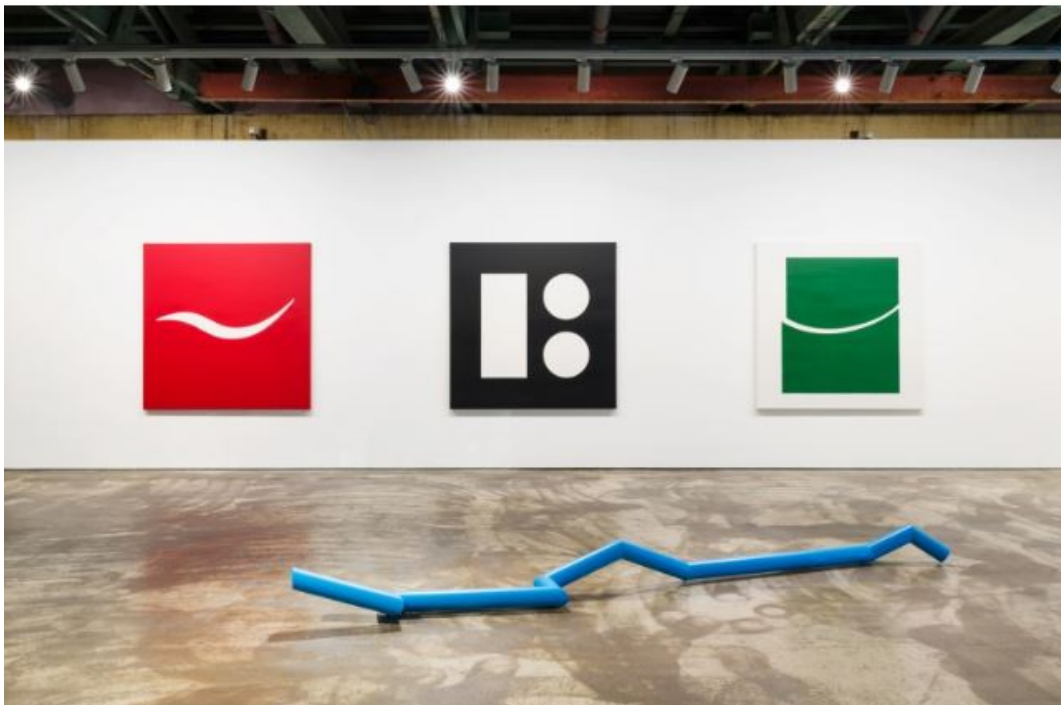
[Kukje Gallery Busan] SUPERFLEX_installation view_3

전시장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파란색 조각 작품이 인상적이다. 숨겨진 의미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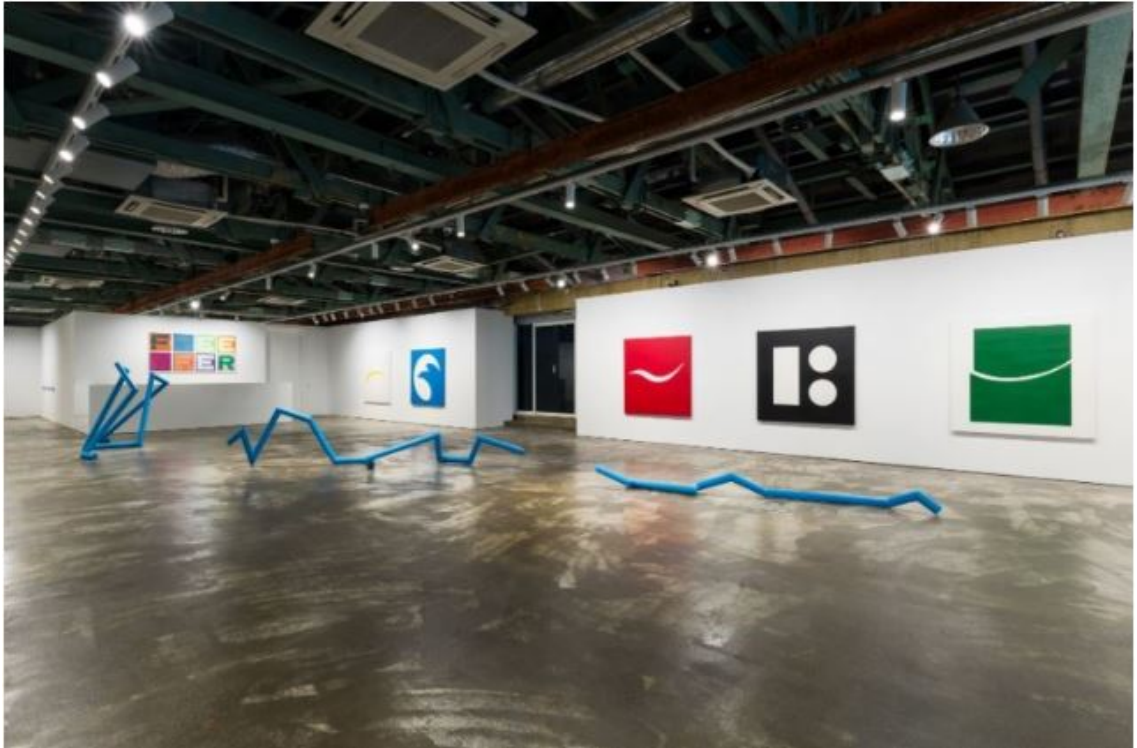
조각 '커넥트 위드 미Connect With Me'는 비트코인의 급락을 수치화 한 것이다. 비트코인 그래프는 개인이 책임지는 경제를 표현한다. 비트 코인이 가시적으로는 자유경제의 유토피아를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이것 또한 완전히 실패할 수도 있다는 부정적 의미도 갖고 있다.

갤러리 한쪽 벽면을 장식한 거대한 작품은 무엇인가?

'뱅크럽 뱅크스, 2013년 10월 30일Bankrupt Banks, October 30, 2013'는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금융위기의 시스템을 연구해 만든 작품이다. 당시 파산한 은행이 많았는데, 파산 은행을 인수한 은행이 크게 성장하는 경제 시스템이 흥미로웠다. 파산 은행의 이름은 '선샤인Sunshine'과 같이 공교롭게도 미래에 대한 긍정적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우리도 그룹 작가로서 항상 마찰을 겪기에 고객의 미래를 보장해놓고 파산에 이르는 과정이 흥미로워서 이러한 은행들의 기념비를 세워보자고 생각했다. 긍정적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바뀐 측면을 다룬 것이다. 2미터 X200미터에 파산 은행들의 이름을 새겨 경제의 흥망성쇠를 담았다. 회화 작품 '뱅크럽 뱅크스Bankrupt Banks' 연작은 사랑스럽게 보이지만, 파산 은행 로고를 형상화한 것이다. 로고는 심플했고 문화적으로 흥미로운 작업이었다.



[Kukje Gallery Busan] SUPERFLEX_installation view_5



[Kukje Gallery Busan] SUPERFLEX_installation view_4

아티스트 그룹으로서의 단점과 장점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우리는 지난 25년간 협업해왔고 협업의 힘을 믿는다. 여럿이 함께 하면 더 빨리, 더 멀리 갈 수 있다. 개인의 힘은 작다고 생각한다. 그룹으로 일하다 보니 때로는 분쟁도 있지만, 작품으로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다. 긴장과 마찰을 좋아한다 (웃음). 슈퍼플렉스는 3인 아티스트 그룹이며, 15인으로 구성된 스튜디오도 운영하고 있다. 스튜디오에서는 건축, 영화까지 다루며, 집단 지성을 추구하고 있다.

전시에서 맥주도 작품으로 선보였다는 것이 흥미롭다.

인간은 내러티브narrative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생물과 차이점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주목받는 경제 공유과 비슷한 맥락이다. 우리는 협업을 선호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창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프리비어FREE BEER'는 이런 생각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과거의 경제는 저작권을 중시하고 개인 권력을 존중했다. 하지만 신경제에서는 모두가 자유롭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레시피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맥주 제조법을 공개해 누구든지 만들어 마실 수 있도록 하고, 판매를 통한 이익 창출도 가능하도록 했다.



[Kukje Gallery Busan] SUPERFLEX_installation view_4

작품의 매개체로 맥주를 선택한 특별한 까닭이 있는지?

맥주는 새로운 경제를 대표하는 매체다. 다들 처음에는 오픈 소스 경제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워해 실제 상품과 연결해 보여주려고 한 것이다.

지식은 인간 간에 오가는 것이며, 계속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념이다. 프리소프트웨어 운동에서 기원한 작품으로, '프리'는 공짜, 자유의 중의법적인 표현이다. 오픈 소스 맥주는 덴마크의 작은 브류어리에서 버전 1.0이 첫 발표되었고, 이번에 부산에서 선보인 맥주가 7.0 버전이다. 세계 각국에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있으며, 항상 다음 프리 비어 레시피를 고민한다. 캔 디자인은 맥주를 마시는 순간의 즐거움을 반영했다. 꼭 돈 내고 사 먹어야 할 정도로 매력적인 맥주를 보여주고자 했다. 다양한 관점과 지식을 공유한 이 맥주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며 대화를 유도하는 매개체다. 국제갤러리 부산 옆 '프라하 993'의 체코 출신 양조 전문가가 매실을 넣어 제조해주었다.

기후 변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다. 그 이유는?

경제와 기후 변화는 중요하다. 우리 미래는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 경제와 기후 변화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해 작품으로 만들고 있다. 전시장 반대편에는 조각 '알프레 보, 르 디루즈Après Vous, Le Déluge'를 설치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기후 변화 위기를 보여주었다. 번여을 위한 인간의 꿈은 거품과 같고, 자연의 경고 역시 위기로 다가온다. "내가 죽은 후에 홍수가 온다."라는 루이 15세의 무책임한 말처럼, 파리기후협약이 어처구니없이 흔들리고 있다. 우리는 UN에서 자료를 받아 미래의 해수면 상승을 예측해보았다. 이번 전시 작품은 100년 후 해수면이 1미터 상승했을 때의 높이를 가시화한 것이다. 파리 전시에서는 300년이 지나면 4미터 17센티미터 까지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연구 조사를 반영한 바 있다.

얼마 전 파주 도라산 전망대에서 선보인 그네 작품 '하나 둘 셋 스윙One Two Three Swing!'에 대해 설명 해달라.

DMZ가 가깝기 때문에 그네 작품을 설치하고 싶었다. 처음 테이트 모던 미술관에서 그네 작품을 선보였는데, 그네가 아주 커서 세 명이 함께 타야 하는 것이 콘셉트였다. 3인의 연결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차원의 연결고리를 짚어보고자 했다. 이번 역시 남한과 북한의 긴장감을 해결하고자 설치한 것인데, 조만간 북한에서도 전시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다. 작가로서 사회의 다양한 장애물을 대할 때는 고민이 된다. 남북한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때가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그네는 장소를 바꾸며 각국에서 전시하고 있다. 그네가 다양한 정치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서 각 나라마다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세 명이 동시에 노력해야 움직이는 그네이기에 협업의 중요성을 보여줄 수 있고, 경제 참여라는 의미도 표현할 수 있다.

새롭게 관심을 가진 이슈는?

공공장소를 만들고 그 의미를 알리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덴마크에 최근 공원을 조성했는데, 지역민들이 함께 만들어 의미 깊었다. 덴마크 사람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모두 참여한 작업이라 인상적이었다. 우리는 이를 '극단적 참여'라고 불렀다.



[Kukje Gallery Busan] SUPERFLEX_installation view_7